

# 음악회·마당극... 문화로 만나는 오월

무대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광주 공연단체들의 노력은 올해도 계속된다. 5월 한 달 동안 상설음악회, 마당극, 연극 공연이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열리며 관객과 광주정신을 함께 한다.

◇62개팀 매일 공연 '오월의 노래'  
먼저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가 5월 한 달 간 5·18민주광장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한 '오월의 노래'는 1일부터 31일까지(4·17·21·25일 제외) 매일 오후 7시 30분 전 전남도청 별관 앞에 설치된 무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사)오월음악(이사장 김원중)이 주최·주관하고 김동찬 좋은친구들 대표가 연출을 맡았다.

이번에는 싱어송라이터 이진우와 포크 그룹 '우리나라'의 1일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62개팀, 400여 명이 광주를 찾아 오월을 다룬 창작곡과 민중가요 등을 부른다.

20년째 매년 광주를 방문해 평화를 노래해온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은 16일과 17일 5·18 전야제 무대에 연달아 서며 광주 시민을 만난다. 5일에는 지난 2016년 '오월의 노래'에서 첫 무대를 가진 뮤지컬 '비망'이 공연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대학생들이 출연하며 무대를 꾸민다.

민중가수 김원중, 박문숙, 류의남, 박종화씨 등이 힘을 보태고 역대 '오월장작가요제'에서 수상한 '투스토리', 이형주, '투제이'도 무대에 오른다. 아울러 '오월어머니회'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통일조국과 민족을 노래하는 '우리나라',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는 '희망새', '광주노동자노래페스티벌' 관객 '꽃다지' 등이 광주정신을 노래한다.

1980년 항쟁 기간이었던 18·27일에는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 나종영, 김준태, 주영국, 조성국 작가 등이 무대에 올라 오월 시를 낭송한다.

김원중 (사)오월음악 이사장은 "일부 극우단체들의 5·18 폄훼와 왜곡이 극심해지고 있어 오월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규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일 수록 광장에서 시민들과 오월을 함께 노래하는 무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오월음악이 진행하는 '9회 전국 오월장작가요제'에는 지난 18일까지 나흘 간 총 188곡의 창작곡이 접수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0팀은 오는 5월11·12일 현장 경연을 거친 뒤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 특별무대에서 진행되는 본선 무대에 오른다.

'오월의 노래' 공연은 약천후에도 예외 없이 열리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maymusicbusking)를



광주의 오월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상설음악회 '오월의 노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5·18계승 전국 62개팀 참여 '오월의 노래' 한달간 열려

20년째 광주 방문 일본 '우타고에 합창단' 전야제 무대에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등 마당극 공연

푸른연극마을 5·18다룬 블랙 코미디 '잠뽕' 상연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682-0518.

◇몸짓·표정·대사로 잇는 오월 정신  
광주의 대표 마당극 단체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은 오는 3일부터 6월7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5·18민주광장에 오월상설무대인 '금요 456극장'을 펼친다. '금요 456극장'에서는 1980년 5월의 상황을 '언젠가 봄날에', '꽃등들어 님 오시면' 등 마당극 공연으로 재현한다.

'언젠가 봄날에'는 5·18 행방불명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탈곡, 소리, 춤 등을 무대에 올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항

쟁의 아픔과 슬픔, 그에 대한 극복의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했다. 5월3일·10일·18일·24일 공연.

'꽃등들어 님 오시면'은 진도 '다시래기'와 '씻김굿'을 통해 분단영령들을 달랜다. 마당극 본래의 놀이정신을 살려 분단영령들의 한 많은 사연을 곁으로 풀어냈다.

오는 26일 자정에는 시민참여낭독극 '2019 민주대성회'를 연다. 참가자들은 오월과 관련된 사·소설을 각색하고 1인칭 글쓰기를 통해 창작물을 만들어낸 뒤 광장에서 시민들과 이를 낭독하며 공유한다. 춤,

노래, 연극 등 표현방식이 어려워져 도정향쟁의 마지막 밤을 추모할 예정이다.

'금요 456극장'은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의 하나로 광주문화재단·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문의 062-527-7295.

지난 2016년 초연한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은 오는 17·19일 오후 2시 동구 동명동 민들레소극장에서 무료 상연된다. 1983년 창단한 극단 토박이는 '금희의 오월'(1988), '모란꽃'(1993), '청실홍실'(1997) 등 오월광주를 다룬 작품을 꾸준히 만들어왔다.

난타 등 춤과 노래가 결합된 무대에서 주먹밥으로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광주 시민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풀어낸다. 박정운씨가 연출을 맡고 박문숙, 기춘희, 박소영씨가 음악 작업에 참여했다.

송은정, 박정운, 강중원, 임해정, 박유정, 이종경씨 등 신·구 출연진이 호흡을 맞춘다. '오! 금남식당'은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중·고교로 찾아가는 공연을 펼치기도 한다. 문의 062-222-6280.

극단 푸른연극마을은 5·18을 다룬 블랙 코미디 연극 '잠뽕'을 동구 동명동 씨어터연바람 무대에 올린다. 1980년 5월17일 밤, 광주의 한 중국집 '춘래원'에는 한 군인이 들이닥쳐 배가 고프다며 잠뽕을 달라고 위협한다. 배달부 만식은 계산을 하지 않는 군인과 실랑이를 벌이는 한편 신군부가 들이닥친 광주는 혼란에 빠진다. 윤정환 작가가 각본을 맡고 오성완 푸른연극마을 대표가 연출했다. 엄준필, 박세훈, 오세희, 방지영, 송한울, 김현우씨가 출연해 국가폭력에 스러져 간 소시민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전석 3만원. 5월 24일·6월9일 평일 오후 7시 30분·주말 오후 5시. (5월27·29일, 6월3·4일 휴무). 문의 062-226-2446. /유연체 기자 yjyou@kwangju.co.kr

## 독서토론으로 5·18 역사 이해하기

한승원 작가·박해용 박사 등 23~31일 4차례 강의

역사학자 E. H 키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과거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이해는 실천적 차원에까지 이르러야 온전히 담보될 수 있다.

5·18민주혁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열려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청이 주최하고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소(소장 박해용)가 주관하는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가 오는 23일, 24일, 30일, 31일(각각 오후 3~6시) 모두 네 차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동구 금남로 221) 7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독서 토론은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사)인문지행이 후원한다.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광주의 5월을 다룬 소설로, 무자비한 국가 폭력이 어떻게 어린 생명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를 추적한 작품이다. 지난 2016년 맨부커상을 수상했으며 한 작가의 다른 작품 '채식주의자'와 함께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작가 한강은 당시 인터뷰에서 "제가 작품을 썼다기보다 소설 속 주인공인 소년과 80년 광주를 체험했던 시민들이 작품을 썼다고 본다. 돌아보며 글을



박해용·심옥숙 박사



한승원 소설가

쓰는 동안 저의 삶을 온전히 그분들께 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독서 토론프로그램

강사로는 한승원 작가, 장정희 작가, 박해용 박사, 심옥숙 박사, 박성천 박사 등이 나선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이라는 인문강의와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소설 강의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조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독서 토론은 학생 20명(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과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를 지급한다(한 단체당 최대 80만원 지원). 책은 무료 배부된다. 신청 및 문의는 010-5205-5668으로 문자 연락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학 연구 소모임 지원 '소탐대담' 모집

광주문화재단, 22일까지

광주학 연구 소모임을 지원하는 '소탐대담(小探大談)' 참여자를 모집한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윤기)은 '근·현대 광주'를 소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소탐대담(小探大談)'은 '작은 탐구 활동이 모여 큰 이야기를 이룬다'는 뜻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소한 관심을 확산해 지역학 토대를 이루자는 취지다.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분야에서 '광주'를 키워드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연구모임 또는 세미나팀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신청은 '연구과정팀'과 '일반인팀'으로 선택해 지원할 수 있으며 석사 과정 이상 해당 분야를 전공한 연구자나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모두 접수 가능하다.

연구내용은 '근·현대'라는 시대적 범주와 '광주'라는 지리적 범주 내에서 신청자가 주제를 발굴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5월20일부터 22일까지다.

소모임의 연구 활동은 세미나, 콜로키움 등 다양한 형태로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해 지원하되 각 팀당 에세이·소논문·저널 등의 원고를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야 한다.

6개월 간의 연구활동을 진행하면 문화재단에서는 올 하반기 공동으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결과물을 소재자로 발간할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